

# 여야 “은평 을·광주 남구를 잡아라”

## ■ 7·28 재보선 D-6

7·2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은평 을과 광주 남구가 최대 관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두 곳의 재보궐 선거 결과는 향후 정국은 물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당내 역학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해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 은평 을〉=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 한나라당 후보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는 한나라당을 넘어 여권의 정국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장 상 후보 지원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도 신경민 MBC 아나운서 영입에 실패하는 등 공천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이는 재보궐 선거,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부 책임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결과따라 향후 정국·당 역학구도 영향 불가피 최대 관심지 부상...성희룡·야권 단일화 변수

현재 관세는 한나라당의 우세 국면 속에서 민주당이 야권후보 단일화를 통해 막판 대역전극을 노리는 형국이다. 한나라당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이재오 후보가 민주당 장 상 후보를 상당한 격차로 따돌리고 있다며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굴하기’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장 상 후보가 뒤쳐져 있기는 하지만 한나라당의 성희룡 과반이 확산되고 야권 후보단일화 등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역전 가능성이 있다는 자체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 은평 을)은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면 이길 수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틀나는 대로 지원유세에 동참해달라고 독려했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

가 최근 전화 음성녹음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했으며 21일 오후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는 한편 중앙선관위에 이 후보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광주 남구=당초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 장병완 후보와 민주노동당 오병운 후보가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는 광주 남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는 추후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우선,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에 대한 광주 민심의 현주소를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민주당 1당 독점구도가 흔들리는 등 광주지역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여기에 뒤늦은 전략공천에 따른 민주당 지도부

에 대한 책임론도 확산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관세는 어느 쪽의 우세를 자신있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민주당 장병완 후보 측은 초반에는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민주당 조직이 총동원되면서 점차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보이지 않는 민주당 표심이 막판 투표장에 결집하면서 두 자릿 수 이상의 격차로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 오병운 후보 측은 광주 여당의 민주당에 맞서는 야권 단일 후보인데다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려는 민심이 결집되면서 지지세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노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의 모든 조직이 남구에 투입되면서 오히려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는 당일 투표함을 개봉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심각한 한나라당

한나라당 안상수대표 등 수뇌부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강용석의원 사건을 의식한 듯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 강용석 ‘性風’ 일파만파

## 與 재보선 영향 차단 주력... 野 선거 쟁점화 공세

7·28 재·보선을 앞두고 터진 한나라당 출신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 논란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은 재·보선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선거 쟁점화를 시도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강 의원의 과거 다른 성희롱 발언까지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문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7·28 재보선을 앞둔 한나라당에 성희롱 발언 파문이 청천벽력이었다. 따라서 강 의원을 전일 전격 제명한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국민계 심려를 꺼져 죄송하다”면서 “어제 당 윤리위가 강 의원에 대해 신속하고 강

력한 조치를 취한 것은 국민의 도덕적 요구에 부응하는 게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한나라당은 앞으로 성희롱 문제에 대해 더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회위원을 비롯한 모든 당직자가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지도부 차원에서) 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 전체를 겨냥하며 파문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은평문화예술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체질과 문화가 완벽히 바뀌기 전에는 도저히 이런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여당 의원이 대통령 후보까지 성희롱에 동원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업기적이고 패륜적인 성스캔들로, 재보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를 인용, “한나라당발(發) ‘성풍’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 ‘검풍’으로 잠재우려 하고 있지만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강용석 의원의 추가 발언이 공개됐다.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강 의원은 학생들에게 같은 자리에 배석한 민주당 전현희 민주당 의원을 두고 “(전 의원은) 60대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 밥 한번 먹고 싶어 줄을 설 정도”라며 “여성 의원의 외모는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이 낫다”고 말했다는 것. 그는 또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얼굴은 예쁘지만 키가 작아 불똥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재보선 때까지 해외 나가지 말라”

### 박지원 ‘근거잡기’ 외유금지령

7·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세가 심상찮게 돌아가면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외유 금지령’까지 내리면서 비상을 겪었다.

20일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보선 때까지 절대 해외에 나갈 생각을 하지 말라”며 외유 금지령을 내리면서 적극적인 선거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지난 ‘6·2 지방선거’와 달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뛰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지금 재보선 지역구 8곳 가운데 쉬운 곳

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한 뒤 “현 상황을 비상하게 보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은평 을의 경우,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며 “틀이 나는 대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非)민주당 단일후보로 나선 민주노동당 후보의 추격세가 거센 광주 남구 선거와 관련, 광주지역 의원들에게도 역시 “뒷밭에서 지면 여파가 클 것”이라며 ‘상주’를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1일 강기갑(앞줄 왼쪽부터) 전 민주노동당 대표,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와 김두관(두번째줄 가운데) 경남도지사가 경남 창원군 길곡면 함안보 공사현장 인근 전망대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 野4당 낙동강 방문 4대강 공조 시동

야 4당은 21일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해 ‘국민 검증기구’를 구성, 보다 강도 높은 공사 저지 노력과 대안 마련 활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4대강 사업 반대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정세균, 민주노동당 강기갑, 진보신당 노회찬,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와 김두관 경남지사는 이날 집중호우로 공사가 중단된 경남 낙동강 함안보 공사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정세균 대표는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4대강 공사를 즉각 중지해야 하고 사업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를 위해 야 4당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지자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검증기구를 구성, 상시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여성 비하’ 강용석 고소

###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21일 여성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냈다. 고소장은 아나운서연합회 회장을

맡은 KBS 성세정 아나운서와 각 방송국 아나운서협회장인 이재웅(MBC), 손범규(SBS), 김성은(KBS) 아나운서가 접수했다.

성 아나운서는 고소장 접수에 앞서 남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용석 의원의 이번 발언은 유감스럽다”

며 “여성고 특정 직업을 비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낸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지위의 사람으로 이번 일에 책임져야 한다. 공개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법을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미르의 송영수 변호사는 “강 의원의 발언 중 아나운서와 관련된 부분이 통상적으로 성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름의 조각들

더운 여름 푸른 바다와 함께 행복찬 기억을 선물해 드립니다.

나도 반짝이는 추억이 있으니까